

세금을 내는 데 부담이 없는 세상을 소망하며

박 세 순

경남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석문마을

저는 지금껏 13년 간 화개면 석문마을 부녀회장을 맡아 일해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시간만 많이 흘렸지 마을을 위해서 크게 한 일 없는 제가 지방세관련 수기를 쓴다는 것 자체가 어찌면 우스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난 세월이 결코 짧지는 않기에 그 동안 저의 생활 속에서 일어난 작은 일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석문마을은 이름난 관광지로서 관광철은 물론이고 관광비수기에도 끊이지 않고 관광객이 찾아오는 관광명소입니다. 토지가 협소한 마을 여건상 대부분의 마을 주민들은 관광객 대상으로 노점상을 하거나 식당, 기념품가게 등을 운영하면서 생계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일부 이름난 식당이나 상가를 경영하고 있는 주민은 그런 대로 살만하지만 대부분의 중하류층 주민들은 그 날 벌어 그 날 먹고사는 실정입

니다. 몸이 불편하여 하루 행상을 하지 못하면 그 날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저는 마을 부녀회장을 맡고, 얼마 있지 않아 이장의 일을 돕는 반장의 일을 지금껏 약 13년 간 맡아오고 있기 때문에 집집마다 순가락이 몇 개정도 있는지 까지 가정형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삶의 애환까지도 저만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한창 새마을 운동을 할 때에야 무조건 아끼고 저축하고 하는 일들이 국가적인 운동으로서 저축과 근검절약이 몸에 배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리 경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요즘에야 어디 그게 쉽습니까? 하지만 제가 살고 있는 석문마을의 경우 아꼐래야, 저축을 할래야 할 수 없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

도 많이 있습니다. 이는 다만 우리 석문마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농촌의 현실일 것입니다.

지금도 새마을 운동을 하던 70년대를 회상해 보면 아직도 “절미저축”을 하면서 매일 아침밥을 짓기 전에 쌀을 한 줌 절미저축 항아리에 넣던 기억이 너무나 생생합니다. 지금도 우리국민 모두가 그런 정신으로 생활한다면 한 사람도 가난하게 살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의 남편은 70년대 초 갓 결혼한 나이의 젊은 혈기로 이장을 1년정도 하다가 다시 4년 전부터 석문마을 이장을 맡아 일하고 있습니다.

워낙 성미가 다혈질이라서 일을 두고서는 밤잠을 잘 못 자는 사람이고 면사무소 일도 꼭 일등을 해야 하고야마는 성미입니다.

아마 전국에서도 우리 부부처럼 반장과 이장, 부녀회장을 동시에 맡고 있는 집을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금년 초 일입니다. 면사무소에서 체납세 정리를 하라는 강력한 지시가 있어 면사무소 세무담당자가 우리 마을에 와서 살 듯이 살았습니다. 고액 체납자가 있는 우리 마을로서는 저희 남편이 면사무소 직원의 얼굴을 쳐다 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우리 마을 때문에 화개면이 군내에서 등수에 들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저의 남편은 고액체납을 정리하기 위해 체납자를 만나 독려하고 면사무소와 군청의 관계 부서를 찾아다니면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선처를 부탁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1천만원 가량의 고액체납자가 결손처분의 조치를 받은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제 생각으로는 그분의 경우, 남편이 사업을 하다 사별하고 혼자 녹차 공장에 다니면서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1천만원의 체납을 정리하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결손처분이 나자 남편은 경우 안도의 한숨을 쉬기도 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각종 세금고지서가 이장을 통하여 각 세대별로 배부되었습니다. 납기가 정해져 있는 터라 하루라도 빨리 고지서를 집집마다 전달하는 것이 우리 부부의 급선무였습니다. 우리 마을은 쌍계사라는 큰절과 쌍계초등학교가 있고 또 관광지라는 특성 때문에 주소만 화개면에 두고 거주를 하지 않는 스님이나 선생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마을과는 달리 고지서를 정확하게 배부하는 데만 상당한 노력이 듭니다.

지난 1월 달의 면허세도 그랬습니다 만, 이번에 배부된 자동차세 고지서도 하루라도 빨리 배부하고자하는 면사무소 직원들의 욕심으로 밤 8시가 되어 직원이 저희 집에 고지서를 가지고 와서는 내일 중으로 꼭 배부되도록 하라는 억압 아닌 억압을 받고 마음에 큰 부담이 되어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이 일터에 나가기 전에 전달하기 위해 우리 부부는 고지서를 반으로 나눠 새벽 5시경부터 고지서를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7시경이 되어야 겨우 배부를 마칠 수 있었지만 역시 쌍계사 스님들이 이동

등으로 인하여 배부하지 못하는 고지서가 10장 정도나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 고지서 주인을 절이나 이웃에 파악하고 전화 번호를 파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우편으로 발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자동차가 사치품으로 통하였으나 사실 요즘은 영세민들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부득이 자동차를 갖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인지 이런 분들이 세금을 납부하기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동네 입구에 지체 장애인으로서 죽세품을 가공하여 간이 비닐하우스형 임시 가게에서 자기의 작품을 팔아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자동차세 고지서를 전달한다는 것은 하나의 고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딸린 식구들 때문에 생계를 유지하기도 힘든 분이지만 감사하게도 고지서를 가지고 가면 한 번도 인상을 찡그린다는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오히려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고지서를 가지고 가면 불평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세상에 저렇게 순박한 사람만 있다면 요즘 세상이 이처럼 각박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번 선거 때 어떤 후보의 홍보물을 보면서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적은 세금을, 부자에게는 많은 세금을 내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정책에 적극동의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오늘 벌어들여 먹고 살고 힘든 처지에 세금으로 어떻게 내겠습니까?

부자들은 물론 자기가 잘나고 힘껏 노력하여 부자가 되었겠지만 어디 그것뿐이겠

습니까?

국민이나 사회의 도움이 없이 어찌 혼자 힘으로 부자가 되었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부자는 사회 환원사업을 해야하고 본인의 힘으로 스스로 환원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세정책을 통해서 사회에 환수토록 해야하는 것이 저의 강력한 주장입니다. 세금 고지서를 들고 가서 세금을 내라고 말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어려운 우리 이웃을 바라 볼 때 내가 돈이 있다면 이 세금도 대신 납부하고 싶은 곳이 한 두 집이 아닌데 부자들이 자기가 누리고 있는 부에 상응하는 세금을 낸다면 이 사회는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어제 면사무소 민원계장과 담당자가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물론 세금 때문이지요. 이번 자동차세 납기가 6월 30일인데 100% 납기 내 납부토록 이장이 독려를 해주십사 하는 말이었습니다.

글쎄 제 생각에 돈이 있으면서 세금을 안내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마는 일부는 돈이 있으면서도 바쁜 일과로 인하여 납부 시기를 놓친 경우나, 세금에 무관심하여 납기를 놓치는 경우 또 어떤 경우는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마을은 이런 경우가 없도록 오늘 새벽에도 남편이 마을 앰프방송을 했습니다. '마을 주민 여러분! 6월 30일까지는 자동차세를 꼭 납부해야 합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꼭 6월 30일 이전에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방송을 끝내고 돌아온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죽세품을 만들어 판다는 그 분의 전화였습니다. 오늘 자동차세를 꼭 내겠다는 전화였습니다. 비록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이장이요, 반장이요, 부녀회장이지만 이런 전화 한 통에 피곤도, 힘든 것도 모두 잊게됩니다.

요즘에 우리 하동군이 방송를 통하여 많이 보도가 되고 크게 알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자랑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우리군의 살림살이 중 군민이 내는 세금은 겨우 20%도 안 된다는 것을 들었을 때 군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힘이 들까 하는 생각을 하게되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그만큼 상급기관에 부탁도 많이 해야하고 빌다시피 하여 돈을 얻어와

야 할텐데 세금으로 받아들이는 돈이 부족하니 공무원이 어디 힘이 있겠습니까?

자동차세야 몇 십 만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면허세의 경우 6천원, 1만2천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작은 세금이 모여 우리군이 발전한다는 생각을 하면 세금을 납부하는데 주저하거나 아까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더욱더 저의 작은 소망은 우리군민 모두가 한사람도 세금을 납부하는데 부담이 없을 정도로 부자가 되고 잘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죠?

언제까지 제가 반장을 하고 남편이 이장을 할 줄 모르나 우리가 일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마을을 위해 봉사하리라는 다짐을 해 봅니다. 🙏